



박태환이 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WFCU 센터에서 벌어진 제13회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이틀째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1초03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은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박태환 新났다

수영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아시아 신기록 우승…2관왕

박태환(27)이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2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WFCU 센터에서 벌어진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 이틀째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1초03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딴 라이언 록

티(미국)가 2010년 두바이 대회에서 세운 1분41초08을 갠 대회 신기록이다. 자신이 2007년 베를린 FINA 경영월드컵에서 세운 아시아기록(1분42초22)까지 갈아치웠다. 2위는 1분41초65를 기록한 채드 드 로스(남아프리카공화국)가 차지했다. 이 부문 세계기록은 2009년 파울 비더만(독일)이 기록한 1분39초37이다.

전날 자유형 400m에서 3분34초59로 우

승하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른 박태환은 이를 연속 가장 빠르게 물살을 갈랐다.

앞서 열린 예선에서 1분44초09를 기록, 전체 106명 가운데 7위를 기록한 박태환은 결승 1번 레인을 배정받았다.

좋은 기록을 내는 데 불리한 1번 레인에서 출발한 박태환 첫 50m부터 선두를 지켰다. 이날은 경기 초반부터 속도를 내는

전략을 들고나온 박태환은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고, 마지막 50m 클로스의 맹추격을 뿌리치고 결승점에 도착했다.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규격인 50m 절반인 25m를 왕복하는 대회로 2년 마다 개최된다. 박태환은 2007년 11월 FINA 경영월드컵 시리즈 이후 9년여 만에 쇼트코스 대회에 출전했다.

FINA로부터 받은 18개월 징계 해제 후 전신만고 끝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했던 박태환은 전 종목 예선 탈락이라는 아픔을 맛봤다.

절치부심한 박태환은 10월 전국체전 2관왕에 올라 재기의 발판을 다졌고, 지난 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자유형 100m·200m·400m·1500m를 모두 제패했다.

박태환의 은사 노민상(60) 전 수영국가대표팀 감독은 “(최근 부진했다고 해도) 박태환은 세계 5위권 성적을 줄곧 유지하고 있었다. 이제는 세계 정상에 복귀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말이다. 원래 기량도 출중한 데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며 인간적으로도 성숙했다”고 제자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번 메달은 ‘전략의 승리’라고 줬었다.

노 전 감독은 “오랜만에 쇼트코스에서 경기하는 박태환이 옆 레인 선수에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집중하려 예선 성적을 조절했다. 전략을 짜서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니 선수로 더욱 성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쇼트코스에서 잘 타려면 일단 턴 동작이 좋아야 하고, 코스가 짧아서 순발력도 뛰어나야 한다. 박태환이 이 모든 점에서 실력을 보여준 셈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민 어깨 수술…6개월 공백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오른쪽 어깨의 옷자란 뼈 제거수술을 받았다. 최대 6개월의 공백이 예상된다.

KIA 투수 윤석민이 8일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공제병원에서 우측 어깨의 옷자란 뼈를 제거했다. 관절경을 통해 수술을 받은 윤석민은 3~4일간 입원치료를 하며 수술 부위에 대한 정밀 관찰을 한다. 이후 합병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할 계획이다. 재활치료 및 훈련에는 4~6개월 가량이 필요할 전망이다.

윤석민은 고질적인 어깨 통증에 시달리면서 국내 복귀 후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복귀 후 첫해였던 지난 시즌 윤석민은 마무리로서 역할을 했다. 51경기에 나와 2.9%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2승6패30세이브를 기록했다.

올 시즌 선발로 복귀했지만 세 경기만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마운드에서 이탈했다.

윤석민은 4월5일 LG와의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서 6이닝 5피안타 1볼넷 6탈삼진 1실점으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지만 두 번째 등판이었던 4월10일 kt 원정에서 4이닝 7실점(4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된 뒤, 4월 17일 넥센과의 홈 경기 이후 자취를 감췄다. 윤석민은 넥센과의 경기에서 9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지만 경기가 1-2패로 끝나면서 완투패를 기



록했다. 긴박했던 경기 상황 탓에 완투까지 했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경기가 되고 말았다. 윤석민은 완투 이후 어깨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4월26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윤석민은 8월 30일 SK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고, 이후 불펜으로 13경기에 나와 12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3.00과 1승1세이브6홀드를 남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태권 스타 총출동…월드그랑프리 파이널 열린다

오늘부터 아제르바이잔서…한국 10명 최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포함한 태권도 스타들이 다시 세계최강의 자리를 놓고 올해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세계태권도연맹(WTF)은 9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사리호지 올림픽 경기장에서 2016 태권도월드그랑프리 파이널을 개최한다.

지난해까지는 남녀 각 4등급에서 올림픽 랭킹 상위 8명만을 초대했지만 올해부

터는 개최국 선수 1명을 포함한 채급당 16명으로 초청 대상을 늘렸다. 올해 대회는 지난 10월 올림픽 랭킹 기준으로 초청 선수를 가렸다. WTF에 따르면 초청 선수 128명 중 총 41개국에서 118명이 출전하겠다고 알렸다.

지난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부 49kg급 김소희(한국가스공사), 57kg급 제이드 존스(영

국), 67kg급 오혜리(춘천시청), 67kg초과급 정수인(중국)과 남자부 80kg초과급 라디크 이사예프(아제르바이잔) 등도 참가한다. 국가별로 한국이 김소희, 오혜리 등 여자부 5명에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남자부 58kg급 김태훈(동아대), 68kg급 이대훈(한국가스공사) 등 5명을 더해 10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한다. 러시아와 멕시코가 8명씩으로 뒤를 잇는다. 영국은 6명의 선수를 내보낸다.

동메달 결정전도 치른다. 각 체급 금·

은·동메달 수상자는 상금으로 각각 6000달러·3000달러·1000달러씩 받는다.

대회가 끝나면 11일에 바쿠 바담다르호탈에서 2016 WTF 갈라 어워즈가 열린다. 2014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갈라 어워즈는 ‘올해의 남녀 선수’, ‘올해의 남녀 심판’, ‘올해의 코치’, ‘올해의 국가대표’, ‘올해의 베스트 킥’ 등 총 7개 부문을 시상한다.

‘올해의 남녀 선수’는 리우올림픽과 이번 그랑프리파이널 금메달 수상자를 대상으로 행사 현장에서 선수와 코치, 심판들의 투표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이대훈은 2014년과 지난해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화 로사리오 재계약

월린 로사리오(27)가 한화 이글스에서 2년 연속 땀다.

한화는 8일 “로사리오와 15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보다 20만 달러 오른 금액이다.

로사리오의 올해 큰 관심을 받으며 KBO리그에 입성했다. 2011~2015년, 5년 연속 메이저리그에서 주전급 선수로 활약한 27세 젊은 야구가 한국프로야구 무대를 밟는 건 무척 흥미로운 일이었다. 로사리오는 빅리그에서 5시즌 동안 447경기에서 타율 0.273, 71홈런, 241타점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117경기 타율 0.270, 28홈런, 71타점을 올려 내셔널리그 신인

왕 투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화려한 이력을 갖춘 메이저리거 출신 타자도 KBO리그 입성 초기에는 적응에 애를 먹었다.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에 헛스윙으로 물러나는 장면이 많았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과 지금은 KIA로 떠난 소다 고조 타격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이며 ‘한국형 외국인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시즌 종료 뒤 한화는 로사리오에게 재계약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로사리오가 메이저리그 복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일본 진출도 염두에 두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로사리오는 13일 미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도쿄 올림픽 야구, 요코하마 스타디움서 개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장이 요코하마 스타디움으로 확정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8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도쿄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야구·소프트볼 경기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1978년 건립된 요코하마 스타디움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장 중 하나로, 일본 프로야구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의 홈 구장이기도 하다.

2011년 쓰나미와 대지진이 발생했던 후쿠시마 지역에서 도쿄올림픽 야구 예선경

기 일부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일본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지진 및 방사성 물질 누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올림픽 야구 경기를 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후쿠시마 지역 중 3개의 경기장이 고려 대상에 올랐으나, 아직 IOC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후쿠시마 경기 개최에 대해서는 이날 확고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고 싶다”며 후쿠시마 지역 야구경기 개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보냈다.

/연합뉴스